

배구 OK저축은행, 부산 시대 개막



KOVO 이사회서 만장일치 연고지 이전 승인
홈으로 4000명 규모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사용

남자배구 OK저축은행 구단원들이 부산을 떠나 부산에 새 둥지를 튼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 사무국에서 남녀부 14개 구단이 참석하는 이사회를 개최해 OK저축은행의 연고지 이전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OK저축은행은 연고지를 현재의 경기도 안산시에서 부산광역시로 옮기기로 하고 이전 신청서를 연맹에 제출했다. 연맹 이사회가 연고지 이전을 승인하면서, OK저축은행은 안산을 연고로 2013년 4월 창단한 이후 12년 만에 부산으로 보금자리를 옮기게 됐다. OK저축은행은 2025~2026시즌부터 관중 수용 규모 약 4000명인 부산 강서체육공원 체육관을 홈으로 쓴다. OK저축은행은 프로 구단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추세와 역행해 수도권을 떠나 부산으로 향한다.

이는 부산시의 적극적인 구애와 OK저축은행의 선택이 결합한 결과다. 부산시는 OK저축은행의 연고 이전으로 야구(롯데 자이언츠), 축구(아이파크), 농구(KCC 이지스, BNK 썬)에 이어 배구단까지 품었다. 이로써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구단을 모두 품은 지자체는 서울과 인천, 수원, 부산까지 4개로 늘었다. 부산시는 OK저축은행의 연고 이전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탄탄한 배구 기반을 근거로 들었다. 부산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 13개의 배구부를 보유하고, 200여개의 동호인 팀이 활동 중이다. 또한 강만수, 김호철, 신지용, 문성민, 박승석, 장소연, 양효진, 박정아 등을 배출한 '스타의 산실'로도 해왔다. 부산 강서체육공원은 부산 김해공항 인근에 자리한 곳이다.

2002 부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완공됐으며, OK저축은행이 사용할 체육관에서는 배드민턴과 펜싱 종목 경기가 열렸다. 이제까지 프로 구단이 사용한 적은 없고, 지금은 배드민턴 등 아마추어 종목 대회와 생활 체육 시설로 활용 중이다. 강서체육공원은 부산지하철 3호선이 바로 연결되고, 김해공항과도 가까운 데다가 남해고속도로 대저 IC 인근이라 접근이 쉬운 것도 장점이다. 권철근 OK저축은행 단장은 "남자배구는 대전 이남으로 팀이 없다. 부산은 엘리트 학생 체육팀만 13개고, 등록된 생활체육 배구인만 1천700명 수준으로 전국 동호인의 4분의 1 정도"라고 연고 이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프로배구도 자생력을 높이려면 더 큰 시장이 필요하다. 인구나 지역의 기업, 관중 수용 인원을 보면 부산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혔다. 지난 13년 동안 연고지였던 안산 시민들에게는 "안산은 시장부터 모두 '우리 품에서 잘 컸으니, 가서 더 성장했으면 한다'고 대답해줬다. 안산 팬들이 팬심을 유지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페퍼스, 한국실업배구연맹&프로배구 퓨처스 챔피언십 출격

7월 2~10일 단양문화체육센터...프로구단 vs 실업팀 첫 맞대결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실업팀과 프로배구 선수단이 함께하는 프로배구 퓨처스 챔피언십 단양 대회에 출격한다. KOVO(한국배구연맹)와 한국실업배구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2025 한국실업배구연맹&프로배구 퓨처스 챔피언십 단양대회'가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충북 단양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다. KOVO와 실업연맹이 연계해 실업팀과 프로배구단이 맞대결을 펼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출전을 위해선 5년 차 이하, 전시즌 V-리그 50%이하(18경기)출전, 전시즌 100세트 이하 출전, 대표팀 소집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 등 4개 조건 중 1개만 충족하면 된다. 여자부에서는 여자 프로배구 7개팀과 대구시청과 수원특례시, 양산시청, 포항시체육회가 출전한다. 남자부에서는 남자 프로배구 7개팀과 국군체육부대, 부산시체육회, 영천시체육회, 화성시청 등이 경기를 치른다. 페퍼스는 출전 선수 명단에 박정아, 하혜진, 이

한비, 박경현, 이원정, 박은서, 박연화, 고예림, 임주은, 박수빈, 이주현, 전하리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페퍼스는 챔피언십 첫 경기로 3일 오후 1시 30분 IBK 기업은행과 만난다. 4일 오전 10시 한국도로공사와 경기를 치르고 5일 오전 11시 30분에는 포항시체육회와, 7일 오후 12시에는 대구시청과 대결을 펼친다. 상위 4개 팀에 준결승 진출권이 주어지며 준결승은 9일 오전 9시 30분과 오후 12시에 각각 열린다. 결승전은 10일 오후 12시에 이뤄진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사상 첫 여성·아프리카 출신...코번트리 IOC 위원장 취임

바흐 전 위원장 12년 임기 마무리

여성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수장으로 뽑힌 커스티 코번트리(41·짐바브웨) 위원장이 공식 취임했다. 코번트리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의 올림픽 하우스에서 열린 IOC 위원장 취임식을 통해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올림픽 메달만 7개(금2·은4·동1)를 따낸 수영스타 출신인 코번트리 위원장은 올해 3월 20일 그리스 코스타 나바리노에서 열린 제144차 IOC 총회에서 제10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7명이 출마한 선거의 1차 투표에서 전체 97표 가운데 당선에 필요한 과반인 49표를 정확하게 얻은 코번트리는 여성, 아프리카 출신으로 모두 최초라는 새 이정표를 세우고 IOC 위원장에 올랐다. 임기는 8년이며, 한 차례 4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년간 일할 수 있다. 전임자인 토마스 바흐(71·독일) 전 위원장으로부터 올림픽 하우스 열쇠를 전달받는 상징적인 세리머니로 임기 시작을 알린 코번트리 위원장은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이슈 해결과 장기적인 재정 확충 등의 과제를 안았다. 코번트리 위원장은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가게 돼 정말 영광이다. 8년 동안 저와 올림픽 운동



IOC 위원장에 취임한 커스티 코번트리가 토마스 바흐(오른쪽) 전 위원장으로부터 올림픽 하우스 열쇠를 전달받았다. /연합뉴스

을 지지해 줄 최고의 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경험을 전하며 "올림픽 운동은 단순히 다종목 행사에 관한 것이 아닌, 영감을 주는 플랫폼이다. 삶을 바꾸고 희망을 주는 플랫폼"이라면서 "여러분 모두와 협력해 오늘날 분열된 세상에서 계속

영감을 주고, 삶을 바꾸며, 희망의 빛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코번트리 위원장은 이제 막 명예위원장이 된 바흐 전 위원장을 향해서는 "12년 동안 순수한 열정과 사명감으로 올림픽 운동에 헌신해 주셨다. 가장 격동의 시기에도 우리를 하나로 묶고, 놀라운 파리 올림픽을 이끌어 주셨다"며 경의를 표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인 바흐 위원장은 2013년부터 맡아 온 IOC 위원장직에서 12년 만에 물러났다. 코번트리 위원장으로부터 올림픽 금장 훈장을 받은 바흐 전 위원장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쳤다. 올림픽 운동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됐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며 "코번트리의 선출을 통해 여러분은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IOC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올림픽 운동은 '최고의 손'에 맡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장우가 23일 강원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79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세단뛰기 경기에서 도약하고 있다. <대한육상연맹 제공>

곡성 출신 김장우, 16년 만에 세단뛰기 한국 新

전국육상선수권서 17m10 기록

곡성 출신 김장우(국군체육부대)가 16년 만에 남자 세단뛰기 한국 기록을 경신했다. 24일 강원 정선종합운동장에서 끝난 '제79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세단뛰기에서 김장우는 전날 6차 시기 17m13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장우는 2009년 광주시청 김덕현의 한국 기록 17m10을 넘기며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곡성 옥과초와 전남체중·고를 졸업한 김장우는 2023년까지 장흥군청 소속으로 활동했다. 김장우는 김덕현의 뒤를 따라 걷고 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했던 김덕현의 뒤를 이어 지난해 8년 만에 한국 세단뛰기 대표로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3 아시아육상선수권 대회 남자 세단뛰기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2015년 김

덕현이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한국에 8년 만의 메달을 안기기도 했다. 200m 한국신기록 경신을 노리는 '현역 최강' 광주시청 고승환은 24일 진행된 결승에서 20초73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얻어냈다. 고승환은 전날 열린 남자 200m 준결승에서 20초45를 기록하며 지난해 6월 전국선수권에서 세운 자신의 기록(20초49)을 0.04초 단축시켰다. 결승에서 한국신기록(20초40) 경신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깨지 못했다. 남보하나(진도군청)는 3000m 장애물 경기에서 10분47초31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장흥군청 선수들의 선전도 이어졌다. 권수아는 여자 원반던지기에서 45m48를 기록하며 3위를, 김진은 남자 해머던지기에서 8m79를 던지며 동메달을 얻어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96회 정기연주회 'Contrast'

일시 : 2025-06-27(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별의 향해

별의 향해 : 오혜성 개인전

일시 : 2025-06-05(목)~2025-07-06(토)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